



광남일보



주간 제 8105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음력 5월 1일)



지난 11일 (현지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 오현규가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황인범이 역전골을 넣어 2-1로 최종 승리했다.



황인범

태극전사들, 월드컵 첫승...역전드라마 짜릿했다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관련기사 5·10·16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한국, 체코에 2-1 역전승...16년만 1차전 승리 황인범·오현규 연속골 '합작'...32강행 '청신호'

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황인범(페예노르트)의 극적 동점골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로써 승점 3을 확보한 한국은 같은 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제압한 멕시코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이다. 지난 2014년 첫 월드컵 감독직(1무 2패)을 소화한 홍 감독 역시 12년 만에 다시 오른 무대에서 첫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 이...

번 대회는 각 조 1·2위와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조 3위까지 통과가 가능한 만큼, 2승만 확보해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A조에 편성됐다. 이 중 체코는 멕시코 다음으로 '난적'으로 꼽힌 팀이다. 객관적 전력상 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은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첫 경기 승리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난적을 꺾어낸 한국은 첫 경기 승리로 조 1위 경쟁까지 바라볼 수 있...

게 됐고, 사실상 32강 진출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제 한국은 19일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2~3차전을 이어간다. 한국은 이날 경기 후반 상대에게 선취점을 내줬다. 후반 14분 체코는 블라디미르 코우발이 길게 던진 공을 문전에서 크레이치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뽑아냈다. 하지만 골이아 한국이 분위기 전환에 성...

공했다. 후반 22분 이강인이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황인범은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친 뒤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35분에는 황인범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연결했고, 문전에서 쇄도하던 오현규가 왼발로 밀어 넣어 역전골을 터뜨렸다. 월드컵 데뷔전에 나선 오현규의 첫 월드컵 득점이었다. 역전에 성공한 한국은 이후 김승규의 선방을 앞세워 승리를 지켜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주사무소 정한다

행안부 '주사무소 주소지는 1곳...복수 청사는 가능' 유권해석 민행배 당선인 "임시 지정...3~6개월 순환근무 후 최종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의 주소지 인 주사무소가 임시로 지정된다. 이는 행정상 주소지에 관한 것으로,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통합특별시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당선인은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총합회 제172회 금요조찬포럼 특별강연에서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인수위에서 통합...

시청사 주소지를 논의 중"이라며 "임시 주소지를 골 한 곳으로 정하겠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사무소를 반드시 1개만 지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행안부에 동부(순천)·무안·광주 3개 청사에 각각 주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 질의했다.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문서 송달 등에 필요한 주소지가 될 주사무소를 3곳에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을 근거로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만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상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법률관계의 기준점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한곳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사무소 한곳을 지정하더라도 복수의 청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민 당선인은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러한 기관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회계·조직·인사·기획 이런 기능들은 제가 직접 3~6개월 순환 근무를 해 본 뒤 위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반도체 투자 성사...당·정부 전폭 지원 절실"

민행배, 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서 건의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꼽으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 당선인은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길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이어 "법적 뒷받침과 지원의 구체화,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경대 대표가 부랴드...

린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남광주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수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민주당 지방정부의 대표 성공 사례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전남광주의 성장이 민주당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초대석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현장 화학사고 반복 '예방 중심 체계' 전환 시급

지금 이사람 김진숙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머리카락으로 피워낸 예술 반세기 지나 예술이 되다

전남농업이야기 오상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곤충이 미래 먹거리" 전남, 밀원 산업과 시동건다

남도 예술인 조혜수 배우 "광주 이야기 현대로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

2026.06 vol. 157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략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개항 다도해 요령 '담개섬' 백척간두 벼랑 끝에서 만나

여기가 명상·치유할뎡 영도공룡사 장정머리가 보이는 마음윌터 자유의 사실

이인곤 광산이씨 도문중 총회장

커버스토리 이인곤 광산이씨 도문중 총회장 "필문 이선재 선생, 조선 단종 스승이자 광주 빛낸 대표적 인물" 영화 '황과 사는 날' 재조명-고려사·태종실록 편찬 참여 광주목 복원 일장·광주항역 창안... 호남 대표 사림 '주축'